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0호 [루게 제23042호] 주제 99 (2010)년 3월 31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인디아 글로벌강철주식회사 회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인디아 글로벌강철주식회사 회장 드 미랄라씨가 2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로씨야와 내달린신문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보도하였다.
로씨야신문 《바브리코프》 제 10-11 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고조의 신봉에 선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내달린신문 《아르판》 19일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각하께서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2. 8비날론연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특별감사문을 보내시었다고 하면서 그 전문을 게재하였다.

2월 22일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공언을 판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명과 의기가 맥박치고 혁명적대인정신이 나뉘지 않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언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963 군부대에 출전전대의 공언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 출전전대원들이 인민군대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특색있는 훌륭한 공

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언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들에게 감사할 줄을 지시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10215 군부대에 출전전대의 공언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 출전전대원들이 인민군대의 무한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가 큰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공언을 참신하고 진투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언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공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이 30일 금수산기념공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한 대회참가자들은 일제기 주체적인 과학기술사상을 제시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어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도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 나라의 보배로 귀중히 여기시며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침탈들과전의 《1211고지》인 과학기술전선을 지켜신 공저와 책임감을 안고 두뇌전, 기술전으로 강성대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결출한 사상리론가, 창조적 거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 때루와 제스프의 출판보도물이 게재하였다.
메루신문 《악세는 나시오날리스따》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42년 2월 16일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신 조선의 백두산밀영의 수수한 커를이에서 탄생하시였다. 혁명가요를 자장가처럼 들으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과정을 직접 목격하신 그이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령도자로서, 주체혁명위원의 계승자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완벽하게 갖추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높이 존경하고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 풍부화시키시고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는데 선자적인 힘을 넣으시려고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하나로 결속시키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보다 굳건히 다지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화해나가시였다.
제스프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제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프동호회지 《조선-백두산》은 14일 《독창적인 창조방식》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는 세계가 꿈인하는 결출한 사상리론가이실뿐 아니라 창조적 거장이시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그의 비범하고 과학적인 혁명학설과 창조적활동으로 하여 수많은 재부들이 마련되었으며 인류의 운명개척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김정일동지의 창조적활동에서 특정을 이루는것은 모든것을 인민의 이익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설계하고 작정한것이다.
그이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고계신다.
[조선중앙통신]

총공세의 불길높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내달린다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1. 4분기계획 맞나게 수행

인민생활대고조로 부른 공동사설의 전투적소식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기계공업부문의 각기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1. 4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통성기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 4분기계획을 힘있게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전기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분기계획 완수의 개가를 높이 올렸다. 계획수행기간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최첨단기술장비, 통남가스화대산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낼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추진하였으며 공작기계, 압축기, 굴착기, 전산류를 비롯한 중요지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시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인민생활대고조로 부른 공동사설과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첫분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계

급은 당장전 65백톤으로 연간계획을 빛나게 수행할 결의의 높이초봉을 증산투쟁의 불길높이 세차게 지퍼올리며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왔다. 그리하여 첫분기 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최첨단기술장비에 제관품을 보내주는것으로써 올해의 첫시작을 자랑스럽게 맨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계속혁신의 불꽃이 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최첨단기술장비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서 일리마다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안아왔다. 제관부문의 로동계급이 2월에 이어 3월에 들어와 일리마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전속도》로 내달려 최첨단기술장비에 보낼 최리실제관작업을 끝내는 위훈을 세웠다. 가공, 조립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대부분공품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폐생장청년 2호발전소, 금야강발전소건설장에 보낼 라만내장지, 입구변제작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지난 2월 홍남가스화대산공장에서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하여 보내준 락원기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계속혁신의 한걸음 높이기 위해 내지도를 무한히 고무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리마다에

서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분기간 공작기생산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락원산소분리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중요대상에 보내줄 산소분리기생산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방대한 홍남가스화대산설비생산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불꽃위는 전투가 벌어졌다. 압축기를 비롯하여 가스화대산설비생산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운 기업소일군들의 경제조직사업에 따라 1분기적정, 1분기적정을 비롯한 여러 직장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면서 덩치 각종 부분품생산에서는 연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압축기직장의 로동계급이 최첨단기술장비에 질풍은 압축기들을 생산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금야강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천정중기기와 각종 물품연양기생산에서 도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아래단위 로동계급이 분기계획수행의 큰 몫을 맡아 들기 위해 열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올해에 중사를 함께 책임지는 림장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린 평양326발전소, 안주발전소공장, 경성에서공장의 로동계급이 상반기년도 영농자재생산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경성전기기구공장을 비롯한 관리

국아래 공장들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이같은 투쟁을 벌려 중요대상들에 보낼 각종 전기기구생산을 높였다.
공작기계공업관리국과 료원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10월의 대추전전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몇몇이 들어선 한마음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중요대상에 보내줄 현대적인 CNC공작기계를 제작하였으며 만경대공작기계공장, 가담기계공장에서서는 성능높은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료원기계공업관리국아래 여러 공장들에서도 농촌에 보내줄 트랙도트부속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불꽃위는 전투가 벌어졌다. 특히 최첨단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심중에서 수난개에 달하는 방대한 부속품생산과제를 무조건 앞당겨 끝낼 각오를 안고 내부에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혁신의 불길높이 세차게 지퍼올려 분기간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평양베어링공장의 로동계급도 말저기 베어링생산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면서 분기계획완수의 데를에 자랑스럽게 뛰어났다. 철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식을 높이 받들고 분기간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통이 크

게 벌어졌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보내줄 자동차생산을 다그치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기계공업부문의 기술자들의 도움없이 기관분공정의 기술개선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공정현대화의 단계별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시켜나갔다. 기관분공정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첨단과학기술의 앞장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할 만만 한 투지와 배심에 넘쳐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분기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재부문에 새로운 주조공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진전이 이룩되었다.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져 이제는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으며 운산공구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지열한 전투를 벌려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공세의 불길높이 첫분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앞당린 그 기세, 그 기백으로 4대선행부문과 경쟁업, 농업 부문에 보내줄 중요대상설비생산을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

안주지구관 광련합기업소에서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는 안주지구관 광련합기업소에서 28일까지 1. 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106.6%로 완수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지난 해 3월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영훈을 안고 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해 정초부터 증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일군들은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막장들에서 최선적정지도를 활발히 벌리는 한편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명천지구관 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에날마다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강, 막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에 들어가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심장과 정황에 맞게 전투적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으며 앞장들의 탄부들을 생산적양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과 2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는 신리, 연풍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분기생산계획을 남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앞장 선 골진, 제관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골진은 1. 8배, 석탄생산은 1. 9배로 끌어올리였다.
인민경제선행부문을 담당하는 책임감을 지니고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고있는 통림탄광 일군들과 탄부들도 골진을 앞세우고 제골조건이 유리한 강들에 력을 집중하여 많은 석탄을 캐냈으며 예비탄광도 너그러워 리해놓았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리브르빌 도착



[리브르빌 3월 2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가봉공화국을 공식선선방문하기 위하여 29일 리브르빌에 도착하였다.
최창식보건의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도착하였다.
비행장에는 조선과 가봉기발이 나뉘고있었다.
김영남동지와 일행을 볼 비오그 음바수상, 볼 동키 외무, 국제협조 및 프랑스어사용국당상, 앙겔리고 은고마국방상, 장 프랑수아 은동주 내무, 사회안전, 이민 및 분권화상, 블레즈 루메예 에산, 품공기능 및 국가개혁상, 로트 올가 관주 체신 및 전자공업상, 에마누엘 알로 주조 가봉공화국 특별전대사 등 관계자들과 리명철 가봉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대사가 맞이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도착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봉공화국 수상이 의례방문



[리브르빌 3월 2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29일 볼 비오그 음바 가봉공화국 수상이 의례방문하였다.
여기에는 최창식보건의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리명철 가봉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대사 외무, 국제협조 및 프랑스어사용국당상, 알폰전 음바 은나보전, 사회사업 및 가족상, 에마누엘 알로 주조 가봉공화국 특별전대사가 참가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볼 비오그 음바수상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주체사상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승리의 가치

오늘 우리는 당의 명도따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여나가는 시기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28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모퉁이 통과에서도 무적필승의 정제사상강국으로 위용벌쳐온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년대기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가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철석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71 (1982)년 3월 31일에 발표하신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창시로부터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과 력사적의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이며 불후의 총서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로 되고있습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28년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밑에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된 나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주체사상을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가 있었기에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주체의 신념이 더욱 억척같이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승리와 변혁의 년대기를 수놓으며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펼칠 수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박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영웅사시기를 창조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었는것도, 혁명적근진정신과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와 라남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갈수 있었는것도 주체의 혁명적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조국이 높은 국제적권위와 존엄을 지니고 인공지구위성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불패의 위용을 떨치며 강성대국을 할현실은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은 주체사상과 그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사상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떨치고 후손만대의 통성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이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파시된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이다. 주체사상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수명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어있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투철한 수명결사옹위정신으로 철석같이 뭉친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강화발전된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하나인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말을 하여도 한목소리로 하고 결음을 걸어도 한모습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만군민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산악같이 떨쳐나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명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적통일체로 굳게 결합된 이런 일심단결의 화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은 사회에 차넘치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최철발견소의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의 수뇌부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일당백공격속도로 발전소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일으키고 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주체사상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수명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어있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투철한 수명결사옹위정신으로 철석같이 뭉친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강화발전된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하나인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말을 하여도 한목소리로 하고 결음을 걸어도 한모습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만군민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산악같이 떨쳐나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명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적통일체로 굳게 결합된 이런 일심단결의 화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은 사회에 차넘치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최철발견소의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의 수뇌부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일당백공격속도로 발전소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일으키고 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주체사상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수명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어있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투철한 수명결사옹위정신으로 철석같이 뭉친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강화발전된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하나인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말을 하여도 한목소리로 하고 결음을 걸어도 한모습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만군민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산악같이 떨쳐나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명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적통일체로 굳게 결합된 이런 일심단결의 화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은 사회에 차넘치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빛내어나가는 강한 자주적대, 제 힘으로 만단을 뚫고 솟아오르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높이 발휘하여야는 승고진취, 우리의 창조방식으로 계속혁신, 계속발전해나갈 때 주체의 강성대국승리의 날은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주체사상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의 보금이다. 오늘이 강성대국건설대진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사상을 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심각한 사상적대결을 동반한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에 길을 열어주면 사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없고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것이 력사의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내부를 사상적으로 경이인 사변이 일어날수 있는것을 바라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만이 이룩할수 있는 자랑한 성과이다. 강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대고조의 승리가 있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이것이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수 있었다. 자기 수명,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는 절대적인 충실성,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끝없이

다시한번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할

우리의 민중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퍼뜨리는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과 생활조건을 단호히 배격하고있으며 그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짓밟아버리고있다. 전체 인민이 자기 명도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포부에 넘쳐 투쟁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본래가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이 있다.

천만군민이 명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투쟁의 기치이며 주체사상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당의 선군명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사상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선군혁명의 위대한 승리가 있고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통성번영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주축에서 살며 투쟁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제시된 사상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우리의 민중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퍼뜨리는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과 생활조건을 단호히 배격하고있으며 그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짓밟아버리고있다. 전체 인민이 자기 명도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포부에 넘쳐 투쟁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본래가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이 있다.

천만군민이 명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투쟁의 기치이며 주체사상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당의 선군명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사상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선군혁명의 위대한 승리가 있고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통성번영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주축에서 살며 투쟁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제시된 사상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제브각하

나는 모스크바지하철도역에서 일어난 테로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것과 관련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99 (2010)년 3월 30일 평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환영하여 가봉공화국 정부에서 연회 마련

【리브르빌 3월 29일 본사 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가봉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환영하여 29일 가봉공화국 정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최창식보건의장, 김형준 외무성 부

국방상, 알폰신 음비 온나 보건, 사회사업 및 가족상, 로르 울가주 케신 및 전자공업상, 에마누엘 알로 주조 가봉공화국 투영전대사, 판매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불 비오고 음바 수상과 불 풍기 외무, 국제협조 및 프랑수아 사용국당당상, 앙젤리코 은고사

사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김영남위원장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봉공화국사이의

부문별 회담들 진행

【리브르빌 3월 29일 본사 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봉공화국사이의 부문별회담들이 29일 리브르빌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최창식보

판상이 참가하였다. 회담들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우호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있다. -동림광산기계공장에서- 최충성 찍음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불패의 힘의 원천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부대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개관앞의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소개관에는 부대가 토지정리에 참가하여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되어있었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뜻깊은 고장의 토지정리를 영광스럽게도 자기 부대가 맡아하였다는것과 그곳 리의 농사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림장에서 도와주고있는데

손수 나무를 심으시며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부대군인들과 가족들이 병영구내와 주변의 산들에서 나무심기를 하고있는 모습을 보게 되시였다. 은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그들의 애국심을 헤아려보시며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의 강행군명도로 어머니수령님의 넘치는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났고있는 내 조국 땅 그 어디서나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한평생 로로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걸으시며 무궁무진할 내 조국의 만년타계를 마련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만년대계의 창조물로서 거연히 솟아올라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전력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서두수발전소에도 부강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여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주체59 (1970)년 5월 어저께였다.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이날 발전소건설부문 일군회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서두수발전소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시기 위해서였다. 서두수발전소로 말하면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로 건설하는 자립경제의 귀중한 창조물이었다. 이 발전소를 건설하면 많은 전기를 얻게 될뿐아니라 서두수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을 때에 이르러는 장군님께서도 좋은 일이라고, 인민대중은 응당 그래야 한다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인이 첫째이고 그 다음 원군이다, 군대는 원민을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대를 원호하는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는것이 군인대단결의 본성적요구이며 여기에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부대에서 양묘기지를 전방상에게 꾸리고 몇해사이여 병영구내와 주변의 수리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응당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대견해 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니 일군들은 충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있어 경제적의의가 대단히 컸다. 그러하여 군인들이 나무심기 작업을 하고있는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군인들과 같이 나무를 심자고 하시며 손수 삼을 드시고 나무를 심으시였다. 일군들은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시였지만 하였다. 거그러면 미소를 지으시고 그에게 전체 물길굴의 암반상태와 그에 적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원래 암반이 좋고 균열상태도 없는 조건에서, 더우기는 사람이 들어갔을때도 아니고 지하철도도 아닌 물길굴이기때문에 그저 내부를 매끈하게 때내는 방법을 세우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암반이 지상에 노출 되어있으면 풍화가 될수 있지만 땅속에 있고 물이 그냥 흘러가니만치

대변에 찾아주신 명안

일군들은 전반적인 건설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이렇다할 방도를 내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초초한 기색에 사로잡힌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을 잠겨계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물길굴에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하는가, 안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토론힐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그만 여러동절해졌다.

물길굴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것은 기준상적으로 알려졌었던 것이다. 장비를 둘러보신 어머니수령님께서 은 이 협의에 설계일군들이 참가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설계일군이 일어섰으나 그도 처음 당하는 일인지라 어떻게 답변을 올릴지 몰라 당황해하며 덩뎨히

이유하여 군인들이 나무심기 작업을 하고있는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군인들에게 같이 나무를 심자고 하시며 손수 삼을 드시고 나무를 심으시였다. 일군들은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크나큰 믿음과 기대

지난해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산하 소부대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목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내내부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소목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고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무리지어 흐르는 소뎨들을 보시고 몇해전까지만 해도 얼마 안되던 소가 오늘날은 수십배로 늘어나 풀안을 가득 채웠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서였지만 하였다. 거그러면 미소를 지으시고 그에게 전체 물길굴의 암반상태와 그에 적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원래 암반이 좋고 균열상태도 없는 조건에서, 더우기는 사람이 들어갔을때도 아니고 지하철도도 아닌 물길굴이기때문에 그저 내부를 매끈하게 때내는 방법을 세우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암반이 지상에 노출 되어있으면 풍화가 될수 있지만 땅속에 있고 물이 그냥 흘러가니만치

거듭 믿음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어머니수령님, 이렇듯 어머니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분석력,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서두수발전소는 주체61 (1972)년 4월에도 제1호발전소를 준공하였으며 그 후 제2호, 제3호발전소를 연이어 조영하는 데담한 착상과 동력기지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흐른 오늘도 어머니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공명대로 완성한 물길굴은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담보해주며 나라의 수력발전소건설에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길이 전해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력적인 현지지도강행군으로 어머니수령님의 리상을 이 땅우에 찬란히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향을 물으시였다. 아직 그 어디에서도 헤보지 못한 시공법인데다가 처음 해보는 일인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온 나라의 수리화, 원림화를 실현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국토와 풍만한 자원을 물려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열렬한것인가를 뜻깊은 그날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충직한 인민군인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도처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기지를 비롯한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들을 수놓아 일떠세워 강성대국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조국의 자애의 힘으로 소목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고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대중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신 강성대국건설에서 계속 혁명의 주력군, 기수로서 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며 그이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정순화

거듭 믿음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어머니수령님, 이렇듯 어머니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분석력,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서두수발전소는 주체61 (1972)년 4월에도 제1호발전소를 준공하였으며 그 후 제2호, 제3호발전소를 연이어 조영하는 데담한 착상과 동력기지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흐른 오늘도 어머니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공명대로 완성한 물길굴은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담보해주며 나라의 수력발전소건설에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길이 전해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력적인 현지지도강행군으로 어머니수령님의 리상을 이 땅우에 찬란히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향을 물으시였다. 아직 그 어디에서도 헤보지 못한 시공법인데다가 처음 해보는 일인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림정호

거듭 믿음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어머니수령님, 이렇듯 어머니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분석력,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서두수발전소는 주체61 (1972)년 4월에도 제1호발전소를 준공하였으며 그 후 제2호, 제3호발전소를 연이어 조영하는 데담한 착상과 동력기지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력적인 현지지도강행군으로 어머니수령님의 리상을 이 땅우에 찬란히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향을 물으시였다. 아직 그 어디에서도 헤보지 못한 시공법인데다가 처음 해보는 일인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당조직정치사업

창조의 불길은 어떻게 라올랐는가

순천화력발전소 초급당비서 리청복동무에게는 10개의 과학기술증서가 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 기술혁신의 불길은 안아온 불씨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도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당사업을 잘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원만히 할수 있습니다.》** 실력은 곧 창조적능력이자,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실력을 가져야 혁명적업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특히 당일군들이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단위의 초급당일군이 받은 10개의 과학기술증서는 단위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일군들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증서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기술혁신과 전력생산으로 고무추동하는 열

순천 화력 발전소 초급 당 위원회 사업에서 백마디의 말을 대신한 정치사업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10개의 과학기술증서에는 나라의 전력생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초급당일군의 피라는 노력이 진하게 숨배여있었다. 이 단위에서는 지난해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달 기세 좋게 나가고있다. 그 성과속에는 《증기터빈진공저하방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기술적인 문제해결에 커다란 도움을 준 초급당일군의 숨은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다. 전문과학자나 기술자도 아닌 당일군이 이처럼 10개의 과학기술증서를 받았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초급당일군으로 말하면 단위에서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 늘 도라라는것은 시간이었다. 우리와 만난 기사장과 기술발전과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초급당일군이 이 단위에서 당사업을 시작해서 얼마간 기

일이 지나서부터 그의 사무실은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후에 알게 된 일지만 낮에는 잠시간을 내지 못하여 밤마다 기술학습에 전념하였던것이다. 당일군들이 정 보산업시대의 발전추세와 기술을 모르고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도 잘할수 없다고 보았기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초급당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에게도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문제토의에서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생산과 기술발전문제가 토의될 때마다 제일 진땀을 뻐 것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초급당비서의 해박한 과학기술지식을 넘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그들은 초급당일군이 단위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푸는데서 팔방미인이 되었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한때 일부 일군들이 많은 과업수행으로 시간을 벌수 없

고 하면서 과학기술학습에 관심을 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난적이 있었다. 그럴 때 초급당일군은 그들을 타이르면서 용케 이끌어갔다. 그리고나서 실력이란 없으며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단 말은 다. 나이가 들고 사업단한이 오매다그 하여 저절로 실력이 높아지는것도 아니다. 오직 학습과 혁명적노력을 통한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에 의해서만 높은 실력을 지닐수 있다. 일군들의 실력문제에 단순한 실 무직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 당과 수행에 대한 충실성에 관한 문제이다. ... 초급당일군의 이런 진정과 실천적모범은 일군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그후 단위의 일군들은 기술학 습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어떤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 일군들의 이런 혁명적인 학습 기풍을 파악자, 기술자, 기능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 배워 단위에서는 기술혁신의 불 길에 세차게 타탄지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에 맞게 기술혁신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또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사업의욕을 부추겨주었다. 살림배제, 전학, 참관, 표창 등 여러 기회에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을 먼저 내세워주었고 일할 나이가 지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도 따듯이 돌봐주었다. 이렇게 일군들이 과학과 기술을 알고 당사업을 하게 되니 단위에서는 최근년간 해마다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발전실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고 수많은 예비품 찾아 전력생산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당일군이 받은 10개의 과학기술증서! 그것이 바로 당의 과학기술 증서로선 관철로 대중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말없는 당 정치사업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대고조는 이런 당일군들을 요구한다. **본사기자 최 시 흥**

기술혁명수행과 송풍기적역할

경제는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첨단들과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에서 승리의 열리는 첨단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당일군들은 송풍기 로안에 바람을 불어 넣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번바람을 일으켜 담이 지퍼준 대고조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첨단들과사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가기 한다. 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첨단들과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영웅이 되고 미래의 개척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첨단들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고 가속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첨단들과과정에서 앞채를 메고나가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일군들이다. 당일군들은 첨단들과과정의 앞장에서 이신적적으로 대중을 불려일으키는 모든 단위에서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부터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부문과 편파부문의 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첨단지식을 소유한 박식가가 되어 대중을 이끌어 나가기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바로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개척하며 더 높이고, 더 빨리 비약하게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인재를 중시하면 막대한 길도 열리는 법이다. 첨단들과과정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상에 빛내어줬다는 자신감만한 과외와 투지를 안고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세상에 없는것도 용감하게 해놓겠다는 배신으로 높은 실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첨단들과과정의 한복판에 용감 뛰어들어 한문 단단히 하도록 그들을 적극 불려일으켜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대중을 첨단들과 함께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송풍기가 되고 가속기가 될 때 선군시대를 빛내어주는 최강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부터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대중을 첨단들과 함께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송풍기가 되고 가속기가 될 때 선군시대를 빛내어주는 최강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부터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평양외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열마진 첨단들과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평양외복공장을 찾았을 때 그곳 기술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잡고싶은 문고리》에 대한 말을 하였던것이다. 행정적인 말이었으나 여기에는 지난 기간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어머니 다름아닌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여야 하며 그들이 언제나 당을 믿고 당조직에 스스로 찾아올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공무실장 박팔철동무였다. 당의 과학기술 증서시공을 높이 받들고 공장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난 그는 이런 말을 불쑥 꺼내는것이였다. **《우리 공장의 기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것은 당일군들이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 서있는것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립장.》**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그것은 당일군들이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해서 많은것을 할 때만이 진정으로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 설수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있는 말이기도 하였다. 초급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란군 대진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올해공공사설을 높이 받들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 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도록 조직적사업을 적극 꺾고들었다. 그리하여 이곳 소조원들은 지난해에 비로시비기를 새롭게 만들어낸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자신만만한 기세로 내달리고있다. 리청복동무를 비롯한 이곳 소조원들은 동물로 김을 잡는 농법을 새롭게 받아들일 대담하고도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이 악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또한 알뜰수확고를 높이면서도 종자처리에서 신인 농약을 절약할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조종치기기를 비롯하여 실리가 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속에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여 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오 철 권**



일군들이 생산자들과 함께 제기되는 기술혁신목표를 풀어나간다는... (text partially obscured)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적극 지원

량강도에서 백두산선군청년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지원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도급기판에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발전소건설지원사업을 활기있게 진행하였다. 지원사업에서는 도인민위원회와 도구역관리국이 앞장서 있다. 도구역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청년들특대원들을 적극 지원할 뜨거운 마음으로 수많은 물자들과 작업공구들을 보내주으로써 발전소건설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시인민위원회, 예산신발공장, 예산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예산시안의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많은 량의 로동보호물 자들과 작업공구들을 마련하여 발전소건설자에게 보내주었다. 김경숙군, 김형진군, 김형권군, 삼지연군에서는 여러가지 로동보호물자들을, 삼수, 보천, 운봉군에서는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많은 공구와 부속품들을 보내주었다. 대흥단군과 강산군, 풍서군들에서도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나갔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백두산선군청년들특대원들에게 지원물자를 전달하고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고무하여주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인민의 기쁨 비단실에 담아

강서 제사공장을 찾아서 까지는... 우리는 올해에 이르러 기술혁신운동에 도입하여 생산성을 1.5 배이상 높이겠다는 제조공정에 이르렀다. 마침 그곳에서는 기사장 정창욱, 조사직장장 김홍수동무들이 《4.15 기술혁신실적》원고를 열띤 토론을 하고있었다. 실 생활을 통하여 생산장정의 혁신에 힘써 비단실생애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이런 민생활동대고조의 주인공들이 열정넘치는 창조적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첨단들과의 열풍속에 이룩될 레일의 성과들을 그려볼수 있었다. 탄약공수심 심정으로 고치신별에서 높은 책임성을 띠고있는 김덕화동무는 물론이요, 인민의 호평받는 질 좋은 여러 종류의 송풍산으로 드비만 후처리작업반원들, 새로운 제진장치들을 받아들이며 증기생산량을 부쩍 높여주는 열관리작업반원들, 새로운 제진장치들을 받아들이며 증기생산량을 부쩍 높여주는 열관리작업반원들, 새로운 제진장치들을 받아들이며 증기생산량을 부쩍 높여주는 열관리작업반원들... **본사기자 리 종 석**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도록

신민주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것이 일군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우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였었다. 그러나 초급당일군들은 기관차에 제능하는 동무들이 있는데 우를 쳐다볼 필요가 있는가고 하면서 기술자들로써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정에 창조적 불씨를 심어주었다. **《우리는 동무들을 믿고 수리기기를 자체의 힘으로 튼튼히 꾸릴 생각을 하였다. 우리 기관차대가 높이는 선 전무공공을 비롯한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바로 동무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초급당비서 임금선동무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신달이 아니라 하고신 위대한 장군님의 **본사기자 최 시 흥**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광물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린다. -3월5일청년광산에서- 본사기자 강 정 민 씩음

제품마다에 비끼 애국의 마음... (text partially obscured)

신발생산에서 계속 혁신... (text partially obscured)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개척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공동구호에서)

뚜렷한 목표, 완강한 실천

첨단을 돌파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주요를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온 나라에 CNC화일공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위대 한 명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풀속에서 키워온 창조적พลัง을 최대한 발휘할 때입니다.」

당위원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국가과학원에서는 올해의 총적방향을 첨단과학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는데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하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모든 과학자들이 첨단과학의 《1211고지》인 과학기술발전의 기수이며 전초병이라는 드높은 영예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พลัง과 지혜와 재능을 펼쳐나가고자 하는데 선전선동사업의 활력을 집중하고있다.

장학, 김철삼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당, 행정사이의

결합이 심화되는 속에 온 나라에 CNC화일공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한 국가과학원적인 목표가 확고히 세워지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과학원에서는 지난 시기 부문연구소별로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연구소들사이의 협동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김철삼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당, 행정사이의

결합이 심화되는 속에 온 나라에 CNC화일공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한 국가과학원적인 목표가 확고히 세워지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과학원에서는 지난 시기 부문연구소별로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연구소들사이의 협동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과학원에서는 지난 시기 부문연구소별로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연구소들사이의 협동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기존설비들을 CNC화하여 자금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CNC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방직연구소에서

위대 한 명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방직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에국의 마음으로 과학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실장 장명희, 연구사들인 김남철, 방직공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위대 한 장군님의 현저지도하인 회천제사공장에 나가 누에고치의 특성에 맞게 제사실수율을 보다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도입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제사실수공정에 진공침투방법과 양이온해소제에 의한 처리기술을 받아들여 제물의 실수율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리면서도 그 질을 더욱 높이고 향미도 그릇 좋았던 질로 바꾸어 「우리 연구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의료용섬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환자치료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그들은 김만영병원의 의료일군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이미 여러가지 인공혈관과 인공정맥, 치료용암박복대 등을 연구개발한데 이어 첨단과학의 기상과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실장 김숙분, 연구사 박명희동무를 비롯한 의료용섬유제품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발휘하여 심장승모관협착증을 치료할수 있는 첨단기구를 연구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사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막아서는 난관을 파고파 뚫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결과 환자의 치료부담을 극력 줄이고 치료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김만영병원의 의료일군들의 밑에 의하면 첨단기구를 환자치료에 적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한다.

성파에 만족을 모르는 이들은 첨단기구의 응용분야를 보다 넓혀나가고있다.

염색완성연구집단과 방직정보집단의 과학자들도 어머니당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전선물을 안고 승리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뛰어선 비상한 열의로 기습 불태우며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이들은 3원색을 가지고 수천종의 색채본을 만든 기계를 늦추지 않고 요구되는 색을 단시간에 염색할수 있는 조색을 얻어내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남구의 낮과 밤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오철룡

본사기자 오철룡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식이 30일 평壤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총성으로 불라는 마음

고산군의약품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정보화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는 비록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경영활동의 정보화,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한몫 담당히 하리라 결심을 다지였다.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십시오

창작단의 일군들은 그의 개발사업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식이 30일 평壤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총성으로 불라는 마음

고산군의약품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정보화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는 비록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경영활동의 정보화,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한몫 담당히 하리라 결심을 다지였다.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십시오

창작단의 일군들은 그의 개발사업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식이 30일 평壤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총성으로 불라는 마음

고산군의약품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정보화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는 비록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경영활동의 정보화,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한몫 담당히 하리라 결심을 다지였다.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십시오

창작단의 일군들은 그의 개발사업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식이 30일 평壤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총성으로 불라는 마음

고산군의약품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정보화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는 비록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경영활동의 정보화,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한몫 담당히 하리라 결심을 다지였다.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십시오

창작단의 일군들은 그의 개발사업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를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정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 1부국장과 함께 30일 의례방문하여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났다

【베이징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후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안영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식이 30일 평壤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총성으로 불라는 마음

고산군의약품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정보화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만수대창작사 박영애동무는 비록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경영활동의 정보화,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한몫 담당히 하리라 결심을 다지였다.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십시오

창작단의 일군들은 그의 개발사업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가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견결한 투쟁속에 자주, 민주, 통일이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통일이나 분열이나,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역사와 시대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통일을 위한 거족적대행진에 총력기해나섬으로써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 발표 10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전환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역사와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여 올해의 조국통일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공동사설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 인민들은 파쇼적탄압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들고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며 그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는것은 6. 15 통일시대가 요구하는 실천적과제이다.

우리 민족이 반파쇼 대결로 열광적 남은 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 6. 15 통일시대를 맞이한것은 자주적은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며

6. 15 통일시대는 자주와 단결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가 유일무이한 리념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대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민족자주의 힘으로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자주권은 민족적독립에 기초하여 해방 민족이 자주적인 정권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민족발전의 추동해나가는 권리이다.

민족자주권은 해당 민족에게 고유한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조신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민족자주와 번영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가 남조선에 강점한 첫날부터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아직까지 웅장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남조선에 무력으로 타고앉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의거하고있는 마지못한정치는 침미보수세력이다. 미국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미국의 기습으로 밀러나 마지막숨을 몰아쉬던 침미보수세대를 제정시킨 사실이 그에 대한 립증으로 된다.

남조선통치자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며 부귀영화를 누리

기 위하여 남조선사회를 파쇼화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 남조선인민들은 입이 있어도 진리를 말할수 없고 눈과 귀가 있어도 정의와 진실을 보고 들을수 없는 파쇼의 만무장에서 살고 있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전세력을 부추겨 북침을 노린 핵전쟁발장단 소동을 팽관적으로 벌려놓았으며 자주와 민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이번에도 강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위협침략한 핵전쟁도발책동으로서 미제의 대조적배경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만약 침략적인 외세와 남조선전세력의 책동을 용인하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와 평화, 번영에 나아가는 현대의 추세에도 어긋나며 민족자주와 단결로 민족의 존엄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6. 15 통일시대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와 존엄을 되찾고 빛내이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이미 지난 10년간을 통하여 겨레의 가슴마다에 굳건히 자리잡은 신념이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사회를 자주화하고 파쇼와 독재체제를 갈아엎으며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실용》 파쇼독재가 삼판치는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각계층 인민들로 하여금 자주, 민주, 통일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절실히 요구

하고있다.

침미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남조선은 정치도 경제도 사회문화도 엉망진창이다. 정치가 극도로 보수화, 반동화, 사대매국화되고 4대강문제, 세중시문제 등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경제가 식민지에속경제로 외세의 사슬에 쫘잠 매이다보니 사회문화도 말이 아니다. 《실용정권》이 출현하여 지난 2년동안에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수십년동안에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여지없이 짓밟혀왔다. 언론의 보수화, 어용화로 진리와 정의가 옹도되고 살벌한 파쇼정치로 민주주의의 사소한 싹도 가차없이 짓밟혀나가고있다.

어디 그런가. 초보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몰아 탄압하고 생존의 권리를 주장해나선 통산철거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적인인민들을 《보안법》위반에 걸여 체포수감한 사실 등은 《실용정권》하에서 파쇼독압, 인민탄압만행이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색은 정권 갈아주세요!》, 《부자들의 세상을 팔아주세요!》,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달라.》, 남조선도처에서 울려나오는 이런 울분을 한결같이 높고나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조물만공도 없는 파쇼암흑사회를 부활시킨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의 분출이다.

반역배당의 죄악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며 관건적요인이다. 그러나 보수배당은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한 이젠 10년째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면서 북남대결을 정책화하였다. 동족보다 외세를 우에 놓고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하고 무모한 《세계공격》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실용정권》의 반동적인 《대북정책》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을 반역 《정권》타도에도 부르고있다.

반역 《정권》타도에 남조선인민들의 남편인 자주, 민주, 통일이 있다. 외세와 매국노들은 저들의 리해관계로부터 남조선인민들에게 절대로 자주, 민주,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투쟁의 무기는 단결이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인민들의 단결, 연합은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인제자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이 없는 자주도 민주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 한 남조선인민들은 대동적진출로 반미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의 분출이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단체들이 안중근烈士의 희생 100년에 즈음하여 26일 친일사대매국적인 피외독재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안중근烈士가 1909년 10월 26일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민족의 반의세, 독립의 기개를 떨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가 희생된 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당국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와 배상언커녕 지금도 이 땅을 넘겨다보며 《독도점유권》만인, 세월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멈추지 않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특히 당국자가 《소, 중학교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쓸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본수상에게 《기다려라.》고 예결한 추태야말로 매국노로서의 본색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족이 일제체 대신하여 남조선에 거머든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내고 친일침미분자들의 후예들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사대매국세력을 하루빨리 청산하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지고 성명은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단체들이 안중근烈士의 희생 100년에 즈음하여 26일 친일사대매국적인 피외독재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안중근烈士가 1909년 10월 26일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민족의 반의세, 독립의 기개를 떨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가 희생된 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당국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와 배상언커녕 지금도 이 땅을 넘겨다보며 《독도점유권》만인, 세월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멈추지 않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특히 당국자가 《소, 중학교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쓸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본수상에게 《기다려라.》고 예결한 추태야말로 매국노로서의 본색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족이 일제체 대신하여 남조선에 거머든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내고 친일침미분자들의 후예들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사대매국세력을 하루빨리 청산하기 위

북남협력의 방해자, 체계적인 파괴자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통일정론》이 글에서 남조선보수당국이 《금강산관광사건》을 구실로 관광을 중단시키고 무는 《3대조건》을 운운하며 관광재개를 거부하는데 대해 《당국 당사자의 부주의에는 생각할餘를 하지 않고 《생명권》과 억지로 결부시켜 사실을 확대과장하고 《합중조사》를 운운하며 북측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입증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언동은 《실용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의 화살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의 보수배당은 애초에 북남화해협력의 상정으로 되고있는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사업을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파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89년 1월 우리와 현대그룹사이에서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가 처음으로 체결되었을 때 당시 군부독재 《정권》은 그것을 빛도 볼 사이없이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그후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개발이 열리게 되자 《한나라당》계열은 북남관계발전을 눈에 든가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고서 마구 뛰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2012년도 멀지 않았는데... 더 힘껏 일하고싶었는데... 등등... 내 몸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당원,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문필남동무의 생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참된 삶이 비건 수업종소리는 오늘날도 교정에 울리고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강령의 계속되고있으니 우리 어찌 문필남동무의 생을 마쳤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의 미래에 바치는 교사의 자욱은 크든작든 영원히 남는다. 삶의 이 진리를 전하며 지금 이 시각도 문필남동무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생을 강령리 바쳐가는 교원형가들의 삶을 노래하며 내 조국의 교정들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울린다. 오늘날 강의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박옥경

성실한 교육자의 참된 삶

당신은 지금이 100일전투기간이라는것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도 온 마을 보전제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있다. 내 걱정말고 저 창문이나 열어서 올라가. 학교에서 울리는 수업종소리가 들리실까? ...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1월 어느날, 오지 교단과 제자들과 오지 문필남동무에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그 시각 풀에 간수한 당원증에 손을 가져다대며 온몸의 힘을 깎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길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칭송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공으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는 나라 방방곡곡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의 정성을 《나라와 인민을 위한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가 구현되는 과정》,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기 시키는 철석의 의지가 반영된 현지지도》,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는 위대한 창조 로정》으로 열렬히 격찬하고 있다.

인디아신문 《페센 인디아》는 현지지도는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령도방법의 하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의 현지지도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적유대를 공고히 하고 격과 혁신을 낳게 하는 위대한 창조의 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김정일동지께서 지나가신 초소와 일터, 마을과 가정

보게 되며 그이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들을 수 있다.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되어 인민들은 신심과 활기에 넘쳐 기적을 창조하고 새로운 위훈을 세우고 있다.

쿠바의 브렌샤 라피나통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군부대와 공장과 농장을 찾으며 군대의 전투준비상태, 공업생산과 농사실태 그리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생활현황을 료해하시고 대책을 취하신다고 하면서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세계적인 전변들은 김정일동지의 헌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그의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에리트레아 《알 마싸이아》는 김정일동지와의 특유한 정치활동방식은 인민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것이요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신다.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고 계시는 그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과학기술중시정책도 세우시고 군대를 나라의 기둥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주력군으로 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할 데 대한 군중시사상, 선군정치방식도 창조하셨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해서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시며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신다.

그이의 현지지도는 곧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가 구현되는 과정이다. 캄보디아신문 《크마에 아마파》는 조선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커다란 성과들이 집중되고있는 근본비결은 김정일각하의 헌명한 령도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진행하시는 불철주야의 현지지도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기 시키는 철석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그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르노아신문 《아르제이아

뉴스》는 김정일동지와의 현지지도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동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인민들을 힘있게 불어넣어주는 과정인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로정이다. 인민군부대와 공장, 농장 등을 끊임없이 찾으신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군인들과 근로자들의 생활현황을 알아보시고 친어버이정형으로 그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푸신다고 격찬하였다.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나라의 존엄과 부강변영, 인민의 행복을 위해 쉬임없이 전진경과 현지지도의 길을 이시며 조선인민을 창조하신다고 격찬하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헌명하게 이끄신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로선을 제시하신다.

그이께서는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헌명하게 이끄신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과 방도도 그의 정력적인 현지지도과정에서 제시되고 열매를 맺고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조국 인민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신다.

본사기자

불변불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라오스신문 《퐁람빠싸온라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를 펼치고 계시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독특한 령도방식으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신다.

언제나 인민들에게 계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베풀고 인민들이 나아가갈 길을 밝히 해주시는 그의 현지지도는 특유한 령도방법으로 되고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로선을 제시하신다.

그이께서는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헌명하게 이끄신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과 방도도 그의 정력적인 현지지도과정에서 제시되고 열매를 맺고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조국 인민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신다.

본사기자

철면피한 《인권옹호자》의 죄악

요즘 세계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세군전만행을 감행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51년 9월 당시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작성상황중 특정보정체조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실험을 개시할것》을 명령하였다고 한다. 미제의 잔인성과 야수성을 단번에 고발하는 력사의 증거문록 되는 이 쿠비문건공개는 국제사회의 대미노골을 폭발시키고 있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세군전을 기본전쟁방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강행한 때는 드물다.

미제는 조선전쟁개시때부터 핵무기와 함께 세군공격을 사용하려는 간악한 흉계를 꾸미고 추진시켰다.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지 얼마 안되어 《조선에서 원자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사용할것을 고려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국내에 《국가긴급사태선언》을 내리었다. 미합동참모본부는 즉시 조선전쟁에서 세군전계획을 작성, 실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38°선일대와 공화국북반부의 넓은 지역에 미제의 세군무기들이 대대적으로 투하되었다. 판저군과 장티브스군, 페스트군에 감염된 곤충과 조류류, 새털들이 들어있는 폭탄들이 공화국북반부의 곳곳에 투하되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재난을 들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원인을 전염병에 걸려 무리로 죽어갔다. 어린이들 역시 미제의 세군무기실험대상으로 되어 가드라는 손발을 피지 못한채 숨을 거두곤 하였다. 이 처참한 광경은 다름아닌 미제의 세군전만행에 의해 펼쳐졌다.

미제는 세군공격사용을 시험적단계로 거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민을 살포하였다. 1952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제의 공중비행기는 공화국북반부 400개소 이상의 지점에 700회이상이나 세군공기와 살인용미생물이 들어있는 각종 물체들을 투하하였다. 미제는 전투에서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이런 극악한 살인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전쟁에서 더 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죽이기

위해 세군공격을 개발하여 거리낌없이 사용한 미제의 만행은 인두검을 쓴 살인마, 승냥이직성을 타고난 미제야수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천인공노할 죄악이다.

미제는 여기에 과거 일제시기 세군전부대 악명용을 떨친 《731부대》의 전문가들까지 끌어들이어 써먹었다. 미제는 저들의 전쟁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면 조선인민족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남장조적인 사고관념을 사로잡혀있었다. 이것은 아메리카원주민들의 피거름용에 《아메리카계족》을 일파세운 미제살인귀들의 본성과 기질의 재현이라고밖에 달리하는 불수 없다.

저들은 범칙은 언제든지 드러나기마련이며 반드시 력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 미제는 만사람이 치를 떠는 세군전만행을 감행하고도 눈심하에 까딱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내었다.

저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어 미국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현지조사보고마저도 부정하면서 그것이 《잘못된것》이라고 우겨대는 철면피한 행동을 하여왔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수작인가. 미국은 이처럼 잔악한 살인범죄, 인권유린만행을 도맡아 저지르면서도 그 무슨 《인도주의》와 《인권존중》을 부르짖으며 인류평화를 기만, 우롱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2009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이 나라의 《인권현형》은 어떻다는 식으로 황실수술하였다.

미국은 유엔부대에서까지 주제넘게 《인권옹호》를 제창하면서 저들이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행세하고 있다. 철면피의 극지이다. 세계가 미국의 가로소를 쳐서 침을 뱉고 있다. 미국은 부정의 물 정의로, 검은것도 흰것으로 둔갑시키는 특등사기협잡꾼이며 악의 제국이다.

인권유린의 현혹인 미국이 철면피하게 아무런 《인권옹호자》의 방지를 받지 않는다. 미제는 그곳은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미제는 극악한 살인마, 인권유린자로서의 정체를 철대로 감출수 없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세군전만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죄파를 씻어야 한다.

백 문 규

호금도주석 서부대개발사업을 추진시킬데 대해 강조

중국의 호금도주석이 21일부터 23일까지 녜화회족자치구의 여러곳을 돌아 보면서 서부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자치구의 각 민족간부들과 인민들이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새로운 용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경제발전방향을 전환하며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기초시설건설을 다그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도 용당한 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아랍국가 연맹 수뇌자 회의 진행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제 22차 아랍국가 연맹 수뇌자회의가 27일과 28일 리비아의 시르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연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동부부드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책동을 끝장내고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원국들이 단결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드스를 《유대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폭력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시르트선언》은 부드스의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규탄하고 독립국가창설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연맹성원국들의 입장을 밝혔다.

로씨야에서 테로사건 발생

【모스크바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의 모스크바 하체도에서 3월 29일 테로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날 아침 두반카역과 빠르게 끝투리역에 정착한 지하철 동차들에서 45분간격으로 자폭

테로행위들이 감행되었다. 로씨야비상사태성은 테로행위로 38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통보하였다.

지하철테로사건과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특별회의를 소집

하고 국가의 테로진압로선과 테로와의 투쟁은 후호의 동요없이 끝장낼 때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모든 주민지대와 운수수단들에 대한 안전보장사업을 보다 강화할데 대해 지시하였다.

전쟁병에 의한 피해 증대

세계적으로 해마다 평균 940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녜성들속에서 결핵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18일 세계보건기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우르구나파소에서 최근 녜막염이 퍼져 피해를 입고 있다. 12일 이 나라 보건상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188명의

녀막염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336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서 맹구열이 퍼져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에 들어와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8425명의 맹구열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5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신형독감감염자 수 캄보자에서 24일 A(H1N1)형 독감감염자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되었다. 4월 4일까지의 1단계 접종감염자 수가 늘어났다. 이어서 5월부터 6월까지의 2단계 접종기간에는 120만명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월간 국제정세 개관

생물다양성보장은 인류의 생존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생물권에 있는 모든 생물 종 동물, 식물, 미생물들과 그것들이 가지고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을 이루는 동물과 식물, 미생물은 자연생태계의 구성요소가 되며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기초로 된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다양성, 종다양성, 유전자다양성의 3개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사람들에게 식량과 옷, 목재, 의약품, 에너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물 보충해주는것을 비롯하여 헤아릴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매개 나라 경계, 모든 민족들이 행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질뿐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연속성으로부터 해당 지역, 나아가서 지구적규모에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오늘 세계적위협에서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자연생태계와 경제발전의 기초를 파괴하며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1970-2000년사이 거의 40%에 달하는 동식물종들이 없어졌으며 특히 강과 호수, 습지에서 서식하던 생물종의 거의 50%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50년동안 북대서양에서는 물고기가 66%나 감소되었다.

가까이 30년동안 대부락에서는 지난 30년동안 대부락에서는

가 사멸되었다고 한다. 그 원인은 거의 모두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로부터 유엔에서는 사람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하여 2010년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하였다.

올해는 생물다양성보호사업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해이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국제생물다양성의 해》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하고 있다.

네델란드에서는 《도시자연》관광 및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슬로벤스꼬에서는 올해 5월에 환경보호축제를 조직할 예정이다 한다. 이외에도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생물다양성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 박람회, 전시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고 있다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에 즈음하여 생물다양성보호와 관련된 여러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올해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행성의 모든 생물종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고 생물다양성보호사업에 적극 협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생물다양성은 곧 생명이다.》 이것이 올해 생물다양성보호사업에서 국제사회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다.

주 승 이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에 호령을 발사하고 세계에 대한 지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저들의 지배주의야망실현에 방해가 되고 좋은 먹이감으로 된다 고 생각하고는 나라들을 강권으로 제 거해버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은 이렇듯 더욱 우성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세계도처에서 군사연습과 무력간섭,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와 압력, 내각간섭행위를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여 나갔다.

이달에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처하였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범위적으로 벌리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연습에 남조선과 해외에 주둔한 1만 8000여명의 미군병력과 방대한 파뢰군무력, 각종 첨단전투장비를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기습타격을 가할수 있는 군사작전을 벌리려는 의욕을 나타내며, 남조선 호전파들은 길게 뚫어놓았다. 북과 남이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에 이르러 특히 세계적으로 정세가 가장 긴장한 조선반도의 한복에서 적들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누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방하는가를 보여 준 현실적증거로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은 이번 전쟁연습을 조선반도 《유사시》 침략력의 신속한 기동전개와 실전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중심, 중요대상물들에 대한 핵선제타격과 실동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었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 호전파들이

기후변화문제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할것을 주장

에티오피아산 펠레스 세나위가 25일 한 의회석상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기후변화문제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발전된 나라들이 그에 대해

발전도상나라들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앞으로 있게 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단결과 협조를 호소

베바는국회 의장이 24일 의국방문과정에서 발언에서 이슬람교국가들이 경제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방시장들과

경쟁할수 있는 거대한 이슬람교시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이슬람교국가들이 서로 단결하고 공동보조를 취하여 서방시장들에 활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책동을 규탄

▲아랍국가연맹 총서기 아르 마호우드 부샤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소르단강안지역과 부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러한 강경책동을 계속 추구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큰 항의와 규탄, 증오를 받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부드스에 있는 유엔인도주 문제조정사무소 책임자가 24일 기자회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봉쇄책동으로 기자회견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봉쇄를 그릇된것으로 락인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정부의 한 관리가 24일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23일 이스라엘수상이 부드스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건설할 권리 자들에게 있다 하니, 《정착촌》 건설을 중지할데 대한 팔레스티나인들의 요구는 부당한것이라하니 뉘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는것과 판연하여 그는 그것은 중동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도전한것이며 국제법을 탄복하게 위반한것이라고 락인 단호하였다.

본사기자

평화의 원수들의 무분별한 망동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그 무슨 《내적적》 이라, 《방어훈련》 이라 뉘니 하고 뉘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는것과 판연하여 그는 그것은 중동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도전한것이며 국제법을 탄복하게 위반한것이라고 락인 단호하였다.

본사기자

오기나와미군기지들에 대한 핵무기반입을 허용한 사실들이 밝혀져 세계의 눈총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핵무기확장의 《합리성》을 제쳐내며 핑기를 부리었다.

일본의 핵고위정책은 로씨야나 중국의 함선이 핵을 탑재하지 않고 일본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핵3원칙》의 법적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지어 그는 《유사시》 미군의 핵반입을 배제할수 없다는 일변한 소리를 하면서 일본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핵정책에 간섭하지 않는 존재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미국상선의 핵전쟁책동을 눈감아주고 일본의 핵무기확장을 합법화하며 나아가서 핵무기를 휘두르며 세계정복의 길에 나서려는 위험한 기도의 발로이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도로개건공사

서아프리카의 5개 나라들이 경제개발을 다그치기 위해 공동으로 도로개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프르티파트의 이비장으로부터 가나, 토고, 베닌을 거쳐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이르는 이 도로의 총길이는 998.8km에 달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나라들 사이의 경제협조와 무역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된다 한다.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한다.

차 생산

인플레이션 감소

에티오피아에서 2009-2010 회계연도에 인플레이션이 7.1%로 감소되었다. 이 기간 정부는 재정부문에 대한

케냐에서 올해 2월에 3만 4800의 차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1% 더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가 교통이 마비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자 연 교 해

●뉴질랜드의 중부지역에서 22일 강풍이 휩쓸어 피해가 컸다.

시속 130km이상의 강풍으로 살림집지붕들이 날아나고 전화선들이 끊어졌다.

또한 자동차와 비행기운행이 마비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한다.

●피지의 북부섬들에 15일 일대성폭풍이 들어닥쳐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살림집과 전력공급시설들이 파괴되었으며 주민들이

정부를 강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한다.

정부를 강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한다.



칠레에서 지진피해 복구사업

를 발표하자 팔레스티나를 즉시 간접회담을 진행하지 않겠어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아랍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의 처사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살림집건설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간접회담을 하지 않겠어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본불복지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권침탈,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특대형인권범죄배려를 안고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논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이 자국의 한심한 인권실태와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는 덮어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내각간섭행위를 하는 것은 파렴치한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었다면 무엇보다먼저 자기의 인권 허물부러 세상을 공개하고 깨끗이 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인권옹호》의 나팔을 요란히 불어대는것은 다른 나라들을 위증송하게 만들어놓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는 회회에 군사적 간섭과 침략을 감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이 날개처럼 휘둘러대는 《인권옹호》라령을 역겨워하면서 제코나 썼으라고 면박을 준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달에 이스라엘은 아랍땅강점정책을 강화하고 평토평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었다. 이스라엘이 모처럼 마련된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을 만들어놓지 않는 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스라엘은 유엔측의 중재에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이 립박한 시점에서 동부부드스에 대한 1600동의 살림집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평화의 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살림집건설계획

를 발표하자 팔레스티나를 즉시 간접회담을 진행하지 않겠어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아랍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의 처사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살림집건설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간접회담을 하지 않겠어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본불복지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권침탈,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특대형인권범죄배려를 안고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논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이 자국의 한심한 인권실태와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는 덮어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내각간섭행위를 하는 것은 파렴치한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었다면 무엇보다먼저 자기의 인권 허물부러 세상을 공개하고 깨끗이 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인권옹호》의 나팔을 요란히 불어대는것은 다른 나라들을 위증송하게 만들어놓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는 회회에 군사적 간섭과 침략을 감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이 날개처럼 휘둘러대는 《인권옹호》라령을 역겨워하면서 제코나 썼으라고 면박을 준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달에 이스라엘은 아랍땅강점정책을 강화하고 평토평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었다. 이스라엘이 모처럼 마련된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을 만들어놓지 않는 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스라엘은 유엔측의 중재에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이 립박한 시점에서 동부부드스에 대한 1600동의 살림집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평화의 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살림집건설계획

를 발표하자 팔레스티나를 즉시 간접회담을 진행하지 않겠어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아랍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의 처사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살림집건설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간접회담을 하지 않겠어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본불복지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권침탈,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특대형인권범죄배려를 안고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논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이 자국의 한심한 인권실태와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는 덮어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내각간섭행위를 하는 것은 파렴치한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었다면 무엇보다먼저 자기의 인권 허물부러 세상을 공개하고 깨끗이 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인권옹호》의 나팔을 요란히 불어대는것은 다른 나라들을 위증송하게 만들어놓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는 회회에 군사적 간섭과 침략을 감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이 날개처럼 휘둘러대는 《인권옹호》라령을 역겨워하면서 제코나 썼으라고 면박을 준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달에 이스라엘은 아랍땅강점정책을 강화하고 평토평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었다. 이스라엘이 모처럼 마련된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을 만들어놓지 않는 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스라엘은 유엔측의 중재에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이 립박한 시점에서 동부부드스에 대한 1600동의 살림집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평화의 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살림집건설계획